

牛首紬

歴史

平治の乱(1159年)に敗れた源氏の落人が白峰村桑島へ逃れ、その妻が村人に機織を教えたのが始まりと言われている。江戸時代には白峰地方は天領となり、幕府の保護奨励策と商品経済の発展により全国的に名声を博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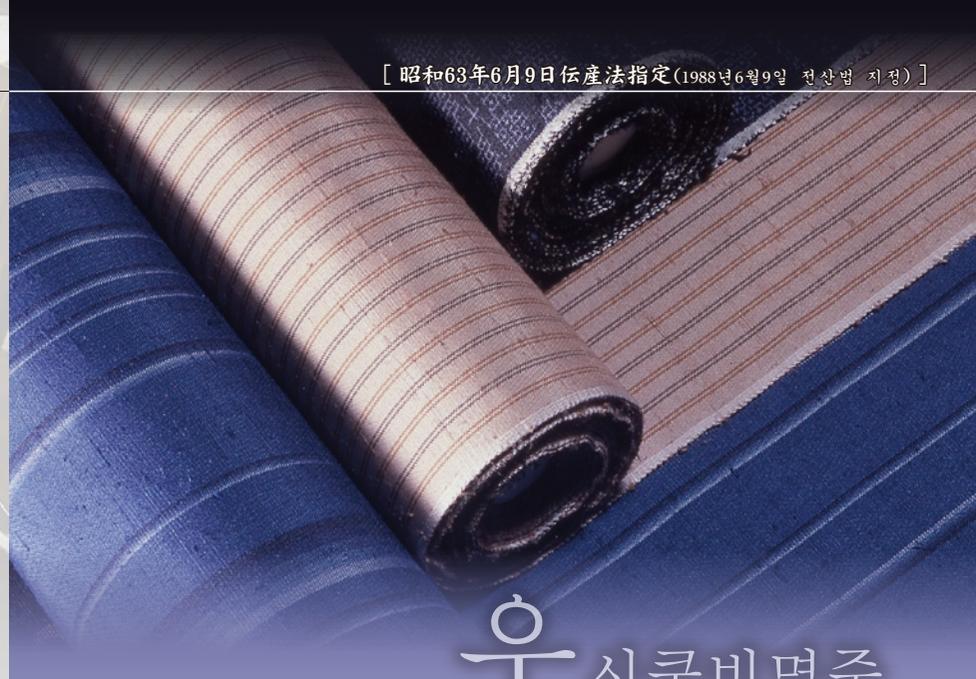
明治以降も養蚕の奨励と共に製糸や紬織が伸びていたが、第二次大戦により姿を消し、戦後、熱意ある人々の努力で復興した。

特色

釘に引っ掛けても反対に釘が抜けるほど丈夫なため、別名「釘抜紬」と呼ばれた。普通、紬は真綿を手で紡いだ紬糸を織るが、牛首紬は、2匹の蚕が共同で作った玉繭から直接糸を引き出して製糸(座繰製糸)した、太く節のある絹糸で織るため、野趣に富んだ素朴な美しさを持ち、独特の味わいがある。

現在でも、伝統技法により糸づくりから織りまでの工程作業を一貫して行っている。

昭和54年7月24日石川県無形文化財に指定された。



우시쿠비명주

역사와 특색

우시쿠비명주는 12 세기 중반, 겐지가 헤이케와의 싸움에 패하고 시라미네무라로 도망쳐 와 직물기술을 마을사람들에게 전수한 것이 시초라고 전해지고 있다. 에도시대에는 우시쿠비명주는 막부의 비호를 받아 지역의 산업으로 발전했다. 제 2 차 세계대전으로 그 모습을 감췄다가, 전후 주민들의 노력으로 부흥됐다.

우시쿠비명주는 부드러운 감촉을 주는 반면, '구기누키쓰무기'라고 할 만큼 매우 질기다. 이는 2 마리의 누에가 같이 만든 고치에서 직접 실을 뽑아 낸 굵고 마디가 있는 견사로 짜여져 있기 때문인데, 야성미 넘치는 소박한 아름다움이 있다. 우시쿠비 명주의 실뿔기에서부터 직조에 이르는 전통기법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오고 있다.

▶ 情報 정보

主な生産地(주요 생산지)	白山市(하쿠산시)
主な製品名(주요 제품명)	訪問着、小紋、先染着尺、帯、和装小物等 (정장 기모노, 고문(무늬가 들어 있는 기모노), 사키즈메키자쿠, 오비(장식용 띠), 일본전통 옷차림 소품)
主な生産者(주요 생산자)	石川県牛首紬生産振興協同組合(이시카와현 우시쿠비명주 생산진흥협동조합) 〒920-2501 白山市白峰又17(하쿠산시 시라미네 누 17) TEL (076) 273-2400 FAX (076) 273-4414